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

——三國史記와 樂浪郡에 대한 再檢討——

金 元 龍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考古學)

目 次

- 一. 序 言
- 二. 樂浪郡의 問題
- 三. 濟貊의 問題
- 四. 三國의 建國과 三國史記
- 五. 結 言

一. 序 言

三國時代의 始作은 從來 西紀 第四世紀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樂浪郡의 滅亡年代와 關連시켜서 그 時代區分上의 妥當性을 더욱 그럴듯하게 認識시켜 왔던 것이다. 即 新羅의 王國으로서의 出發을 奈勿王(359—401)代로 보고⁽¹⁾ 百濟의 實質的建國은 政法體制를 整備한 古爾王(234—285)代로 推定하는 것이며⁽²⁾ 新羅가 建國하여 實質的으로 三國이 鼎立

(1) 李丙燾博士는 麻立平稱號를 처음으로 쓴 奈勿王에 關해서 「나는 奈勿을 新羅의 國家(古代國家)의 建設의 太祖라고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 韓國史 古代篇 p. 339

末松保和博士도 그의 「新羅史の諸問題」속에서 「斯盧國이 近隣數國을 征服해서 魏志時代의 十二國分立의 形勢를 깨트리는데 一段落을 지은 것이 350年頃이 었음을 確實하나 그 征服範圍는 不明이다」(p. 132)라고 말하여 新羅가 4世紀 中葉 奈勿王代를 해서 王國으로 發展한것을 말하고 있다.

(2) 亦是 李丙燾博士는 韓國史古代篇에서 「그리하여 나는 百濟의 嚴密한 意味의 建國年代를 이 三國史記의 古爾王 27~8年頃(西紀 260—261)으로 보거니와」(下略)하고 있다(p. 350)

한 四世紀中葉으로써 三國時代의 開始로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解釋이나 意見은 結局 三國史記에 對한 不信이라는 結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三國史記의 그것을 抹殺해 버릴 수도 없고 해서 三國初期와 所謂 三韓時代가 겹치고 얹혀 우리나라 上古史를 더욱 曖昧模糊하게 만들고 있다. 筆者는 一介 考古學徒로서 文獻을 通해 다루는 三國時代分野에 關해서는 全혀 門外漢이며 以上과 같은 三國時代開始에 關해서 文獻的考察을 加해볼 能力도 없으나 遺跡遺物上으로 보아 三國時代의 始作을 그렇게 늦게 잡을 수 있을까 라는 自己대로의 疑心을 年來로 가져왔으며 또 再昨年에 實施한 風納里土城內 包含層의 發掘을 通해 더욱 그러한 疑心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三國時代開始年代를 훨씬 올릴 수 있는 充分한 考古學的資料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며 이렇게 무슨 考察이라고 題해서 先學여러분의 高說에 批判을 加할 만한 信念이나 根據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小敘에서는 다만 自身의 年來의 疑問을 하나의 問題로서 提起하며 나대로의 몇가지 憶測을 開陳하여 三國史記自體에 對한 우리의 從來의 認識이나 또는 所謂 樂浪郡에 對한 解釋評價 등에 關해서若干의 修正의 可能性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해보고자 할 뿐이다. 三國時代史를 專攻하시는 先學여러분의 忌憚없는 批判과 叱正을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二. 樂浪郡의 問題

우리가 一般的으로 알기에는 漢四郡—樂浪郡의 存在는 絶對的인 것이며 物質的精神的으로 土着韓國人們을 制壓하고 後者の 文化・政治・產業等 모든 活動의 源泉처럼 된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또 樂浪郡은 先史時代의 韓國을 깨우쳐서 歷史時代로 몰아 넣었으며 自己가 길려 낸 아들들에 依해 高麗葬을 치뤄받은 不幸한 老父같은 存在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樂浪郡은 果然 정말 그러한 存在였고 勢力이 있을까, 여기에는 적

지 않은 誤解와 速斷이 있는듯 하다. 周知하시피 西紀前 108年에 設置된 漢의 四郡은 西紀前 75年頃까지의 約 30年동안에 二郡이 自廢되고 一郡은 治所가 遼東으로 옮겨지는 등의 큰 變動이 있었고 다시 西紀 30年에는 남어지 樂浪郡조차 東部七縣을 抛棄하고 西海岸地區로 婉縮하고 있는 것이다. 漢四郡에 關해서는 後章에서 다시 言及하겠지만 이러한 漢四郡의 婉縮은 土着民인 漢族의 反抗에 그 原因이 있었음을 더 말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이 漢族은 韓族地域인 南韓을 除外한 北韓全域의 土着民全部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들은 樂浪郡이 시작되기 이미 오래前에 青銅器를 쓰고 있고 또 鐵器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新의 王莽이 傭兵으로 쓰려고 한 高句麗軍도 바로 이 漢族人⁽³⁾이며 이 漢族兵들이 石斧나 石劍을 들고 그러한 勇兵으로 알려졌을 理는 萬無한 것이다. 그들이 武器뿐 아니라 鐵製의 進步된 農具를 가지고 있었을 것임은 有名한 渭原龍淵洞發見의 鐵製農具一括을 通해서 能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漢武帝의 遠征軍이 平壤城攻擊에 苦生을 하다가 平壤城內部의 內紛, 崩壞를 기다려서야 衛氏朝鮮滅亡에 成功한 事實은 衛氏朝鮮의 強力한 軍事力——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發達된 金屬文化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強力한 軍事力·高度의 文化가 大同江江口地域에만 局限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멀리 江陵의 僮地에서 石製의 半月刀를 쓰며 움집에 살고 있던 漢族人们이 青銅器와 鐵器를 쓰고 있던 生生한 實例를 볼수 있었다⁽⁴⁾. 우리는 漢四郡設置當時의 우리나라 一般情勢에 대해서 우리의 좁은 先入見이나 誤解를 一掃해

(3) 이에 關해서는 뒤에서도 言及하겠지만 高句麗와 漢族이 同族이라는 것은 李丙棟博士의 著書에도 곳곳에 나오는 바이고 最近에는 尹武炳氏가 그의 「漢族考」(白山學報 第1號 1966. 12. pp. 13—28)에서 詳論하고 있다.

(4) 李蘭模「江陵市浦南洞出土先史時代遺物」歷史學報 24輯 (1964年 7月) pp. 119—140

同 「江陵市浦南洞出土先史時代遺物追補」歷史學報 28輯 (1965. 9) pp. 95—100

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漢代라고 하면 中國은 完全한 歷史時代며 그 文化는 東西를 融合한 찬란하고 發達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땅에 바로 붙어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先史時代의 野蠻的狀態에 停滯하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漢의 遠征軍이 이리로 왔다는 그 事實 自體가 여기가 野蠻人이 사는 無抵抗地域이 아니라 強力한 抵抗力を 가진 敵性地區였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樂浪郡이 西紀 30年에 東部七縣을 拋棄한뒤 後漢代의 支配面積은 18縣으로 되는데 그것이 다시 西紀 196—220年間에 南部七縣이 分割되어 帶方郡이 新設되는 바람에 十一縣으로 再縮少되었고 다시 晉代가 되면 六縣, 總戶數 三千七百으로大幅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六縣도 大同江以北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江南의 縣뿐으로 되어있는 것이다⁽⁵⁾. 帶方郡의 新設은 中國의 支配力의 強化라고 볼수도 있을지 모르고 또 적어도 그러한 努力으로 보이지만은 아마 實情은 土着勢力を 利用한 一種의 緩衝地帶거나 그렇지 않으면 遼東半島와의 陸上交通이 不可能한 形勢⁽⁶⁾에 빠져 海上을 通한 交通의 充實化 措置였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何如든 樂浪·帶方郡의 領域은 文獻上으로 뿐 아니라 오늘날 남아 있는 同時代의 遺蹟遺物의 分布上으로도 主로 大同江 江口를 中心으로 하는 좁은 地域에 局限되어 있으며 이 地理的인 分布가 樂浪郡의 實地勢力이나 影響力を 明示하고 있다고 하겠다. 即 오늘날 樂浪·帶方郡時代의 遺蹟遺物이 發見되는 곳은 다음과 같은 地域뿐인 것이다⁽⁷⁾(圖(1)參照)

(5) 韓國史 古代篇 p. 179

(6) 例를 들면 高句麗 新大王(165—179)이 赴任하면 帶方縣令을 路上서 殺害하고 樂浪太守의 妻子를 掠去한 따위事件은 遼東街道의 交通이 西紀 2世紀에는 이미 몹시 危殆로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7) 이것은 古蹟調査特別報告第4冊「樂浪郡 時代の遺蹟」本文 pp. 11—12 및 朝鮮古文化綜鑑 第2冊 卷首「樂浪の文化」에 依한다.

그리고 古文化綜鑑이 들고 있는 것으로 臨屯郡治址라고 傳하는 咸南永興郡順寧面本宮土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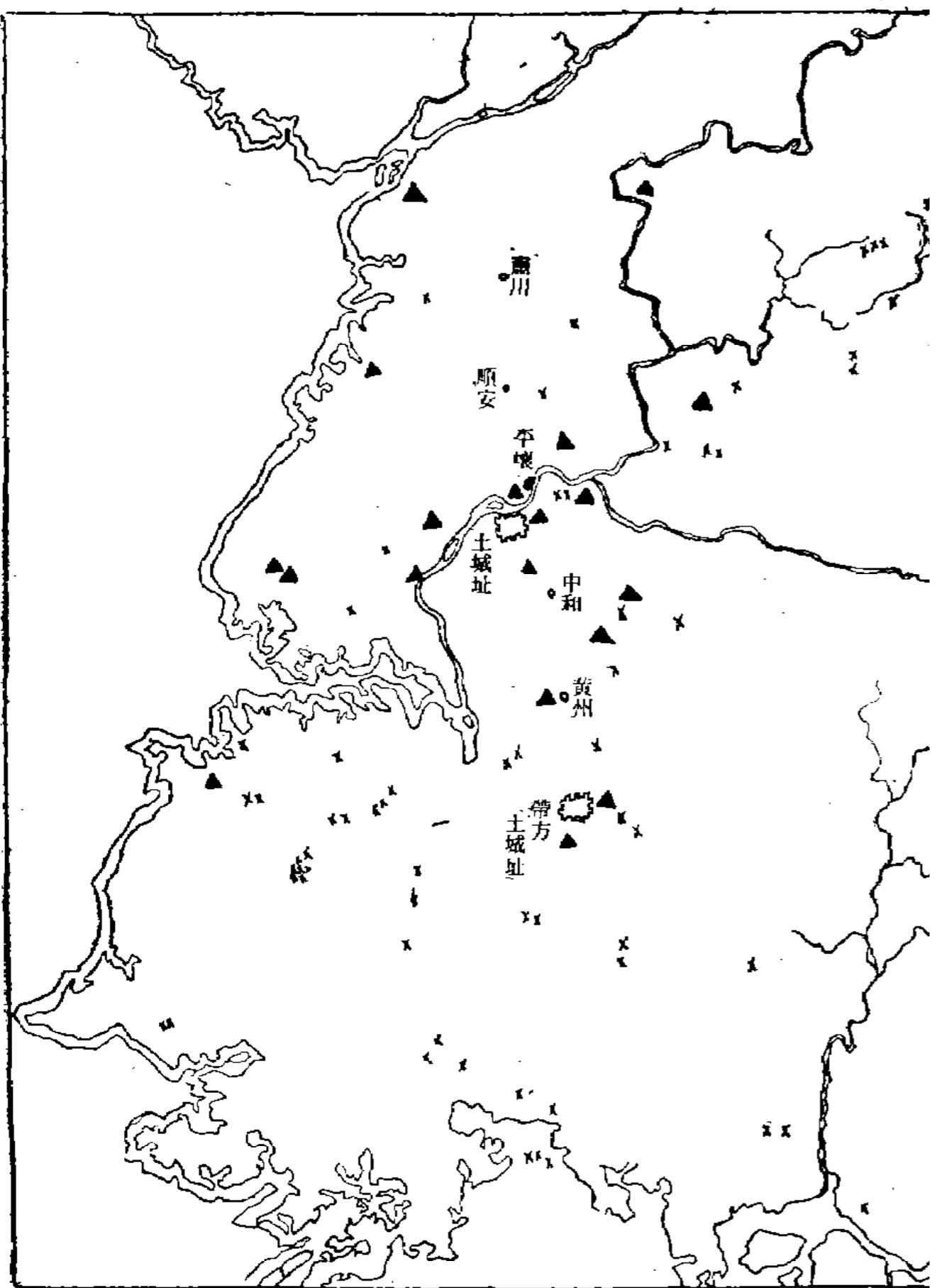


圖 1. 支石墓와 樂浪

平壤市將進洞	
土城洞	
道濟洞	
貞柏洞	古墳群・土城址
石岩洞	
梧野洞	
美林洞	
平南中和郡 唐井面	土城址・壇・瓦・土器片
中和郡 下道面法槿里	古墳・鏡
大同郡 大寶面	壇
大同郡 林原面	壇
大同郡 保山	壇
龍岡郡 海雲面葛城里 於乙洞古城	黏蟬縣治址・古墳
龍岡郡海雲面龍井里	黏蟬縣碑
平南龍岡郡 龍月面葛峴里	古墳・壇
江東郡 江東面智禮洞	古墳・壇
順川郡 北倉面	壇
安州郡 立石面內洞里	古墳
平原郡 青山面	古墳
黃海道鳳山郡 文井面土城	帶方郡治址・古墳
鳳山郡 楚臥面都墓坪	古墳
黃州邑	古墳・壇・瓦・土器片
黃州郡黑橋里	古墳
殷栗郡西部面	古墳群
信川郡北部面	昭明縣治址

이러한 分布地域은 圖面에서 보다시피 平壤을 中心으로 大同江江口·

帶에 몰려있으며 그 面積이 想像以外로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分布區域은 樂浪帶方郡이 衰退한 末期의 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帶方郡設置 以前의 樂浪郡의 實地勢力 範圍는 이보다도 더 平壤附近에 制限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帶方郡新設에 關한 魏志韓傳記事속에 「建安中公孫康 分屯有縣 以南荒地 爲帶方郡 遣公孫模長敵等 收集遺民」等의 文句가 있는 것으로 分明하다. 말하자면 現在의 그 分布狀態나마 最惡의 경우보다 훨씬改善된 것인 것이다.

이러한 分布地域의 狀態에서 우리가 特히 注目하는 것은 遼東地方과 接하고 있는 平北地方에 樂浪郡의 勢力이 조금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事 實인데 이것은 結局 樂浪郡이 高句麗에 依해서 北路를 끓기고 大同江江口에 몰려 있을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即 三方에서 包圍壓縮된 樂浪郡은 大同江口를 通한 海上交通을 唯一의 救命路로 삼고 있었으며 樂浪郡이란 實質的으로 海上交通에 依存한 中國의 한 橋頭堡와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所謂 漢의 郡縣이란 初設當時의 그 宏壯한 發足에도 不拘하고 곧 보잘 것 없이 萎縮해버린 하나의 조그만 租界地 같은 것으로 되어버렸으며 그것이 나마 維持할 수 있었던 것은 이地域에 자리잡고 있던 衛滿朝鮮系의 舊勢力과 大同江一遼東一山東을 連結하는 歷史的인 海上交通路였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漢武帝의 遠征海兵隊가 平壤으로 上陸한 것도 이 歷史的인 航路를 利用한 것이다. 또 우리가 말하는 華麗한 樂浪의 遺物이라는 것도 實은 平壤市南岸 土城洞一帶의 古墳群에서만 나오는 것이며 그 러한 副葬品을 가질수 있었던 中國人們이 郡內全境에 퍼져 있던 것도 아니다. 그런 點을 생각할때 樂浪의 本體가 實地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었는가는 잘 理解가 갈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決코 樂浪의 文物이 周圍土着民들에게 준 影響을 過小評價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影響力問題를 떠나서 樂浪郡自體의 크기나 規模는 意外로 작았다는 事實

을 認識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樂浪·帶方郡의 所謂 郡民의 編成이나 構成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 正確한 内容을 알 수 없다. 그러나 各縣마다 行政區域이 있었을 것이며 그 住民들은 아무나 그저 마음대로 出入하는 것이 아니라 郡民으로서 登錄되고 郡의 統制를 받고 또 그 軍事力의 保護를 받았을 것은 틀림없으며 따라서 비록 非中國系土着民이라 할지라도 郡内에 居住하며는 郡民으로서의 市民權을 가졌던 사람들임이 틀림없고 樂浪郡民이란 그러한 歸化人과 衛滿朝鮮系의 先住中國人 그리고 新來의 官吏를 主體로 하는 中國本土人們로써 構成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追註) 그런데 樂浪郡에 한때 中國人們이相當히 많았고 그들이 農業·商業등에 從事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魏志韓傳에 引用된 魏略의 廉斯鑄記事로써도 짐작할 수 있다. 即 이記事에 依하면 中國語를 말하는 樂浪人千五百名이 樂浪南境에서 伐木作業을 하고 있다가 韓人에게 부풀렸다는 事實과 廉斯鑄가 樂浪은 土地가 肥沃하고 生活이 饒樂하다고 듣고 樂浪으로 歸化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⁸⁾ 伐木人夫로서의 中國人千五百名이나 土地美 人民饒樂이라는 文句나 모두 豐足한 農耕社會를反映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狀態는 魏志에서 말하는 「桓靈之末 韓濶彊盛 郡縣不能制民多流入韓國」의 事態가 벌어지기前 西曆第一世紀以前의 이야기며 二世紀를 지나 三世紀로 들어가면 晉書地理志에서 記錄하다 시피 樂浪郡이 總戶數三千七百, 帶方郡이 總戶數四千九百으로 推算總人口 四萬未滿으로 濟滅하고 있는 것이다.

이 四萬 未滿의 樂浪帶方住民들 中에는 新來中國人以外에 衛滿系先住民 및 歸化濶貊人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前言 한바와 같은데 後漢 光武

(8) 魏志 卷30 韓傳

「(前略) 至王莽地皇時 廉斯鑄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我等漢人 名戶來我等輩千五百人 伐材木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下略)

帝時代에 樂浪郡에서 亂을 이르켰다는 「土人」王調는 이 衛滿系先住民中의 勢力者였다고 믿어진다⁽⁹⁾. 우리는 이러한 土着中國系先住民과 新來의 中國人 即 漢人사이의 關係가 어땠는지 또는 그들의 社會的 構造가 어땠는지 알 수 없으나 現存하는 樂浪系古墳들이 모두 新來의 漢人官吏들의 墓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古墳속에는 所謂「朝鮮人」勢力家들의 그것도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두 系統의 住民들은 歸化漢人의 그것까지 合해서 오랜 時日이 經過하는 동안에 民族的 文化的 政治的 特殊集團으로서 周圍韓國人과는 다른 「樂浪人」을 形成하였을 것은 當然한 일이며 그러한 傳統이 西紀 313年의 公式的樂浪郡滅亡뒤에도 約一世紀동안 이 郡縣故地 即 大同江江口一帶에 뿐리 깊게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歷史的인 海上路를 利用하여 中國本土와 連絡하고 中國의 年號를 가진 벽돌로 樂浪式磚墳을 만들고 이미 없어진 옛날 官名들을 쓰고 있었던 모양이다. 高句麗는 自己네가 平壤으로 移都할때 까지는 이 小地域에 남아있는 過去의 「租界」를 부디 물아내지 않고 그것을 一種의 自治領으로 하여 그 傳來의 生活環境을 維持할것을 許諾하였던 모양이다⁽¹⁰⁾. 西紀 329年 遼東에서 高句麗로 歸投한 慕容仁의 部將冬壽가 이 地方에서 살았고 大同江江南岸인 安岳俞順里에 있는 그의 石墓에 使持節都督諸軍事平東將軍護撫夷校尉樂浪□昌黎玄菟帶方太守都□□幽州遼東郭□鄉敬上里冬壽 云云하는 墓銘이 있는

(9) 이點은 李丙燾博士도 土着本住民(朝鮮人)이라고 推測하고 있다. 韓國史古代篇 p. 174 三上教授 論文(追註)參照.

또 王調亂에 關해서는 後漢書 卷一下 光武帝紀 建武六年條 및 同書卷76 王景傳參照

한편 西谷正氏는 所謂土墳墓의 實態를 分析하여 一部에서 「北方系要素의 消滅과 同時に 漢式遺物의 增加現象을 通해 朝鮮土着豪族層의 樂浪郡支配構造에서 官人化傾向을 強化하간다」고 보고 있다. 西谷正「朝鮮に於けるいはゆる土墳墓と初期金屬文化について」考古學研究 13卷 2號 p. 25

(10) 이점에 關해서는 이미拙稿「高句麗 壁畫古墳의 起源에 關한 研究」(震檀學報 21輯 1960年 10月 pp. 41-106)에서 指摘하였다.

것이나⁽¹¹⁾ 또는 樂浪滅亡後의 紀年銘塚⁽¹²⁾들이 郡縣故地에서 發見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事情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 본바와 같이 樂浪帶方郡이란 것은 實質上 廣大한 地域과 絶대한 政治力を 가졌던 所謂 植民地가 아니고 平壤을 中心으로 한 大同江江口一帶의 조그만 租界地 같은 存在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實情에 가깝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도 다시 論하겠지만 半島의 南北交通이 樂浪郡에 依해서 막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存在가 政治軍事的으로 土着韓國人の 王國建設을 防止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되푸리하지만 이 二郡은 大同江 江口 西海岸 한구석에 몰려있던 조그만 租界地며 그것이 前後 500年間 목숨을 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地域이 衛滿朝鮮以來로 特殊한 文化地域으로서 一種의 뿌리 깊은 傳統을 가지고 있었고 高句麗나 百濟가 積極的으로 壓力を 加하지 않는 限海上을 通한 中國本土와의 交通이 可能했던 까닭이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樂浪郡時代의 碣貊人의 墓制의 正體에 關해서 아는바가 없다

(11) 이 冬壽墓에 關해서는 下記論文參照 熊谷宣夫「冬壽墓紹介」佛教藝術 37號 (1958) 関崎敬「安岳 3號墳(冬壽墓)の研究」史淵 93輯 (1964. 7) pp. 37—84 洪晴玉「關於冬壽墓的發現和研究」考古 1959—1
蔡秉瑞「安岳近傍壁畫古墳發掘手錄」亞細亞研究 2—2, 1959.

그리고 註(12)에서 보다시피 永和 9年 銘塚에도 그러한 官名이 있다.

(12) 樂浪滅亡後의 年代銘을 가진 塚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例가 알려지고 있다

1. 建興□年銘塚 黃海道地方 西晉建興(313—316) ?
2. 泰寧 5年銘塚 黃海道信川郡龍門面福隅里 東晉 太寧(323—325) ?
3. 咸和□年銘塚 黃海道信川郡信川面社稷里 東晉 咸和(326—334)
4. 建元 3年銘塚 黃海道信川郡加山面千城里 東晉 建元(343—340)
5. 永和 8年銘塚 信川郡北部面 東晉 永和(345—356)
6. 永和 9年銘塚 平壤驛構內 이 塚에는 「永和 九年 三月 十日 遼東韓玄菟
太守佟利造」라는 銘文이 있으며 冬壽墓의 銘文과 함께 樂浪滅亡後에도 郡
縣의 官名을 號稱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證明하고 있다.
7. 元興 3年銘塚 信川郡北部面西湖里 東晉 元興(402—404)
8. 建始元年銘塚 信川郡龍門面福隅里 後燕 建始(397 또는 407)
昭和 7 年度古蹟調查報告 第 1 冊(永和 9 年 在銘塚出土古蹟調查報告) 所收
「樂浪 帶方郡時代紀銘年集錄」pp. 5—7

支石墓가 한때 그들의 무덤이 었던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지만 北方式支石墓가 樂浪郡時代全期를 通해서 建造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平壤地區에서 떨어진 먼 地域에서는 그러한 支石墓가 當分間 더持續될 可能性은 充分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支石墓의 分布를 살펴 보면 龍岡郡等에는 드물지만 大同江江口南岸인 安岳, 凤山地區에는相當히 많고 그밖 地域에서는 支石墓는 樂浪, 帶方郡地域에 侵入하고 있다. (圖(1)參照) 이러한 分布가 年代的으로 서로 比較考察이나 分析의 對象이 될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더 檢討되어야할 問題지만 遼東地區에서 漢의 縣城附近에 支石墓가 모여 있다는 事實⁽¹³⁾은 將次 우리의 이 問題에 대한 研究에도 어떠한 示唆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何如든 支石墓가 樂浪地區 깊숙히 들어가 있다는 것은 樂浪郡과 支石墓社會의 歷史的 또는 直接的 關係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樂浪郡이土着의 支石墓社會로부터 宿命的인 壓力を 받고 있음을 證明하고 있다.

이렇게 樂浪郡의 勢力範圍는 意外로 몹시 좁은 一部地域으로 물려있었고 韓半島의 大部分은 高句麗로 代表되는 漢貊과 南鮮 韓族의 自由로운 活動舞臺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三. 漢貊의 問題

漢貊의 問題에 關해서는 많은 研究와 論議의 對象이 된 것은 우리가 다 周知하는 바이다⁽¹⁴⁾. 특히 이 問題를 複雜케 만들고 있는 것은 中國

(13) 三上次男教授는 遼東地方의 支石墓와 縿城問題를 論하면서 「縣城附近에 有力한 支石墓社會가 存在하였을 경우 縍城이 이것과 接觸하여 監視할 任務를 가졌을 것은 當然한 일일 것이다. 아니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有力한 支石墓社會가 存在하였기 때문에 그 附近에 縍城이 設立되었다고도 생각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同教授의 「滿鮮原始墳墓の研究」(東京, 1961年) p. 199 參照

(14) 白鳥庫吉「漢貊民族の由來を述べ扶餘, 高句麗及び百濟の起源に及ぶ」史學雜誌 45編 12號, 金庠基「韓·漢·貊 移動考」史海 1號(1948), 三品彰英「漢貊小考」朝鮮學報 및 次註(15)參照

文獻에 漢貊이 漢貊뿐이 아니라 漢 또는 豺으로 分離되어 나오는 事實이며 그로 因해서 漢와 豺을 別個의 民族으로 보는 意見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¹⁵⁾ 그러나 筆者는 漢貊族은 漢貊二字로써 完名이 되는 것이며 漢나 豺으로 부르는 것은 一種의 略稱이 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이것은 漢貊의 中國古音이 Kuaimo이며 그것이 日本書記에서 말하는 豺(koma) (高句麗)⁽¹⁶⁾와 相通할뿐 아니라 王儉城의 儉이나 蓋馬等「곰」과 關連되며 따라서 檀君神話族이라 할까 檀君神話を 信奉하는 民族의 總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¹⁷⁾ 또 漢貊의 住地는 흔히 생각하듯이 咸鏡道나 江原道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鴨綠江에서 漢江에 이르는 北韓全域에 걸쳤으며 이 分布는 한때 그들의 墓制였던 北方式支石墓의 分布와 一致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北方式支石墓의 分布를 보면 主로 大同江, 臨津江, 漢江의 上流부터 下流에 이르는 流域에 퍼져 있으며 平北地方과 咸鏡道에는 없거나 거의 없으나 하다. 그리고 江原道에도 元山以南의 海岸地帶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때 漱貊族은 우리가 普通 생각하듯이 咸鏡道, 江原道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平安南道黃海道에 몰려있다고 하겠다. 江原道의 山間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江水를 따라 퍼져 올라간 것이며 漱貊族은 西海岸平野에서 江水를 따

(15) 三上次男教授는 漱를 「漁撈와 狩獵을 主生活手段으로하는」 櫛文土器人, 豺을 「平地와 丘陵에 살며 低度의 農耕과 牧畜, 그리고 狩獵을 併行하는」 無文土器人으로 推定하고 豺人이 漱人의 世界로 進出하여 이것을 壓迫하고 西紀前 2~3世紀頃에는 이方面的支配的勢力으로 되었으며 支石墓社會도 豺人の 그것이라고 論하고 있다.

同教授의 「穢人とその民族的性格」(朝鮮學報二) 및 「朝鮮に於ける櫛目文土器社會と穢人」(朝鮮學報三)参照

(16) 이것은 日本書紀 欽明天皇 6年條에 나오는데 이것이 百濟本記를 引用한 것인가 때문에 百濟에서 高句麗를 곰(豺)이라고 부른것이 아닌가하는 金廷鶴教授의 意見은 可能한 일이다.

金廷鶴「韓國民族形成史」(韓國文化史大系 I) pp. 422-423

(17) 그러나 梁柱東教授는 그의 古歌研究(서울, 1960)에서 漱貊의 漱의古音은 歲이고 豺은 「박」이라하여 漱貊은 새밝, 새발이며 所夫里, 沙伐, 東明 등이 모두 漱貊의 借字로 보고 있다.

라 山地로 퍼져들어간 移動方向을 보여주고 있으며 基本的으로 東韓의 이 아니라 西韓의인 存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支石墓가 咸鏡道와 平安道에 缺如된 것은 그 地域이 高句麗의 領域으로서 高句麗는 같은 漢貊族이긴 하지만 地域의인 別族으로서 支石墓代身 積石塚을 墓制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밀어진다.⁽¹⁸⁾

이렇게 漢貊이 高句麗(平安道, 咸鏡道)와 南쪽 韓族의 地域을 除外한 北韓全域에 걸쳐 살던 것이라고 理解할때 비로서 前漢書食貨志의 「彭吳穿穢貊朝鮮」이라는記事나 魏志東夷傳 漢條의

漢 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 皆其地也
云云의記事가 理路整然한 것임을 首肯하게 될 것이다.

漢貊은 앞에서도 指摘하다시피 漢四郡設置以前이나 그 初期에 있어서는 所謂 支石墓人으로서 青銅短劍이나 青銅斧또는 鐵製 武器, 農具를 쓰면서 아직 石器도併用하고 있었으며 그에 對한 考古學資料는一一히 들을 必要도 없을 程度이다. 또 그들은 黃海道鳳山郡智塔里의 櫛文土器遺蹟에서 보다싶이 新石器時代의 農耕 證據⁽¹⁹⁾로 보아 틀림없이 農耕을 實施하고 있었다고 밀어진다. 그러나 漢貊人们이 언제부터 栽稻를 시작하였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前引한 魏志韓傳의 廉斯鏞記事에 「見田中驅雀男子」라고 나오는 것은 南쪽 韓族地域의 北部領土에서 樂浪中國人인 男子 農奴가 田中에서 쟌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며 當時 樂浪地域에서는 틀림없이 벼 農事が 實施되었을 點으로 보아 이記事가 벼 農事의 南播를 證明할 可能성이 濃厚하다고 하겠다. 萬一 이러한 推測이 可能하다면 即 벼 農事が 樂浪으로부터 韓族地域에 西紀前後에 이미

(18) 高句麗가 積石塚, 漢貊이 支石墓라는 것은 三上次男教授도 이디 指摘하고 있다. 三上 前揭書 p. 203

그리고 咸鏡道와 高句麗와의 關係에 對해서는 李龍範教授의 「高句麗의 成長과 鐵」(白山學報 1輯, 1966.12. pp. 29—90)이라는 매우 示唆的인力作이 있다.

(19) 有光教一 朝鮮櫛目文様土器の研究(京都 1962年) p. 32

퍼졌다면은 그것이 더 隣接地區인 漢貊地域에 안 퍼졌을 理由는 없다. 따라서 그 魏志記事의 田이 水田이 아니고 陸田이며 栽培한 것이 奴가 아니고 기장이나 좁쌀 같은 것이 었다 하더라도 發達된 農耕法이 樂浪에서 周圍 漢貊地區로 傳播되었을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漢貊들은 우리가 普通 생각 하는 것 보다는 發達된 文化를 가지고 있었으며 無視못할 힘으로 漢의 郡縣에 壓力を 加해 中國人の 領域을 大同江口의 좁은 地域으로 몰아 넣고 北韓과 南韓을 터 놓아 漢貊族의 南韓進出——例를 들면 百濟의 建國같은 것을 可能케 하고 있었으며 西紀二世紀頃에는 郡縣不能制라고 中國人們이 敗北를 自認하는 狀態에까지 發展한 것이다. 漱貊人们은 高句麗軍에 加擔하여 漢의 郡縣에 攻擊해 갔을뿐 아니라⁽²⁰⁾ 樂浪·帶方의 中國部隊에 加擔해서 百濟에도 쳐들어가고 있으며⁽²¹⁾ 平安南道·黃海道地方의 漱貊이 누구의 統制도 받지 않는 自由民으로서 潛在的인 戰鬪力으로 高句麗·百濟·樂浪·帶方에 똑같이 威脅的인 存在로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일찌기 漢이 漱貊人们에 대한 懷柔策으로서 樂浪郡의 東部七縣을 自治領으로서 拋棄하고 土着人們에게 官職을 준것은 魏志에 보이는 바와 같으나 平壤市貞柏里의 一土壤墓에서 「夫租歲君」이라는 銀印이 發見된 事實⁽²²⁾은 그러한 文獻의 所傳을 證明해줄 뿐 아니라 漱貊의 勢力者들이 郡縣과 意外로 直接的이고 깊은 關係를 가졌던 경우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漱貊에 關해서 하마디 해두어야 할 것은 三國史記百濟本紀에 頻繁히 나타나는 鞏鞨來攻記事이다. 이에 關해서는 百濟條에서 다시 言

(20) 漱貊이 高句麗와 함께 漢의 郡縣을 攻擊한記事는 三國史記高句麗本記에 여러번 나온다.

(21) 三國史記卷 24 百濟本記 資稽王 13年(298)秋 9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爲敵所害薨

(22) 文化遺產 60—2 p. 44, 文化遺產 62—3 p. 8

及하겠지만 史記가 말하는 鞍鞨이란 漢貊이 아닐 수 없으며 百濟에는 西紀前 16, 11, 1, 西紀 22, 30, 31, 34, 55, 216, 229, 各年에 鞍鞨이 侵攻하고 있고 新羅에는 西紀 125, 137, 139年, 세번에 걸쳐 來侵하고 있다. 그러나 高句麗에는 한번도 侵攻한 일이 없다. 鞍鞨이란 이름은 隋書 81卷에 처음 보이는데 여기에는 「粟末部 與高麗相接 勝兵數千 多驍武 每寇高麗」라고 있어 高麗만을 侵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事實鞍鞨은 魏書의 勿吉, 後代의 女眞으로서 그 本據地는 東滿洲로부터 咸鏡道에 걸쳐 있었으며 이러한 鞍鞨이 漢江流域의 百濟에 까지 멀리 그렇게 頻繁히 쳐들어 간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 特히 西紀前 8年에는 樂浪郡이 鞍鞨을 시켜 百濟를 侵攻하였다고 있는데⁽²³⁾ 이런 것을 보아도 三國史記의 鞍鞨이란 漢貊을 混同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三國史記의 編者는 百濟나 新羅에 쳐들어오는 非高句麗族은 모두 三國時代末에 비로서 나타나는 鞑靼로써 統一해버린 모양이며 그것은 아마 舊三國史나 新羅, 百濟의 史料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⁴⁾ 即 漢貊이라는 말이나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은 高句麗가 平壤地方에 들어오기 前까지 通用하고 또 存在하고 있었으나 그 後로는 完全한 高句麗人으로 되어 버려 漢貊이란 말이 없어졌을뿐 아니라 그들이 高句麗民으로서 統制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侵入해도 高句麗人으로서 行動하고 또 記錄된 모양이다. 이것은 鞍鞨(即 漢貊)의 百濟侵入이 298年을 마지막으로 하여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推測되는 바이다. 四世紀以後 特히 6, 7世紀頃이 되면 實地로 高句麗나 百濟, 新羅의 邊境을 侵犯한 外族은 咸鏡道地方에서 南下하는 鞍鞨로 되었기 때문에 過去의 南韓에 對한 이러한 侵入者도 모두 鞍鞨로 遷及統一된 모양이다.

(23) 三國史記卷 23 百濟本記 1 温祚王 11年 夏 4月 樂浪使鞍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秋 7月 設禿山狗川兩柵 以塞樂浪之路

(24) 이에 關해서는 李丙巖博士도 이미 鞍鞨二字는 漢貊이며 後日新羅史家의 改筆인듯하다고 指摘하고 있다. 韓國史 古代篇 p. 356

以上 본바와 같이 漢貊은 鴨綠江流域부터 시작해 北韓全域에 걸쳐 있던 住民으로서 그中一部가 王國을 세워 高句麗가 되었고 後에 그 高句麗의 統制下에 全部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이름은 高句麗가 北韓全域을確實히 掌握한 四世紀以後부터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李丙燾博士나 尹武炳氏의 意見과 같이 漢貊은 歷史上 高句麗와 相通하게 되는 것이며⁽²⁵⁾ 境遇에 따라서는 漢貊 即 高句麗로되는 것이다.

四. 三國의 建國과 三國史記

三國의 建國年代에 關한 三國史記의 記錄은 全部 不信되고 있다.⁽²⁶⁾ 가장 實年代에 가깝다고 믿어지는 高句麗의 경우에도 實質的인 建國은 第6代 太祖王(西紀 53—146)때의 일이라고 推測되고 있고⁽²⁷⁾ 百濟는 第8代 古爾王代(234—285), 新羅는 第17代 奈勿王代(359—401)로 생각되고 있다.⁽²⁸⁾ 그런데 이러한 三國建國年代에 對한 不信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結局 三國史記에 대한 不信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

(25) 李丙燾博士는 韓國史古代篇 p. 126에서 「當時(前漢代)의 이른바 漢貊은 즉 高句麗의 前身으로」라고 하고있고 尹武炳氏는 前書論文의 結論으로서 漢貊은 即 高句麗라고 諭하고 있다.

(26) 李弘植교수는 그 「고구려의 흥기」(국사상의 제문제 제 4집)에서 「삼국의 개국 기년에 대하여서는 전설적인 삼국사기의 것을 그대로 우선 전하고 있으며」(下略)라고 말하고 있다.

(27)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pp. 236—237

李弘植「고구려의 흥기」(국사상의 제문제 五) 金哲埈교수도 「韓國古代國家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 I 所收)에서 「韓族聯盟內에서 一部族의 領導權이 確立되어 뒤에 古代國家成立의 主體로서 登場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한 三國의 王들」로서, 太祖王(高句麗), 古爾王(234—285) (百濟), 奈勿王(356—401) (新羅)을 각각들고 있다. (pp. 492—493)

한편 津田左右吉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이라는 論文이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第9輯에 있으나 이 册은 서울大學校圖書館, 國立圖書館, 國史編纂委員會 모두 缺本으로 되어있어 參考할 수 없었다.

(28) 이런것은 이미 周知의 通說로 되어 있어 일일히 典據를 들 必要도 없겠으나 李丙燾博士는 百濟의 建國은 古爾王 27,8 年頃(260—261)이라고 年代를 보고있다(古代篇 pp. 349—350). 그러나 李基白교수는 近肖古王(346—375)代로 보고 있다. (韓國史新論(1967)p. 56)

러한 三國史記에 대한 不信은 모두 科學的인 根據와 理由가 있는 것이며 中國側 史料와의 比較나 또는 史記自體가 가지는 明白한 誤謬, 矛盾 등을 通해서 그런 結論이 내렸을 것이라고 믿는 바이지만 나는 文獻史家가 아닌 立場에서 한가지 크게 納得이 안가는 點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그렇게 三國史記가 믿을 수 없고 特히 그 上古部分을 不信이라고 一蹴하면서 어떻게 그 아래 部分은 그대로 받아 들이며 特히 建國의 根據로삼는 太祖니 古爾니 奈勿이니 하는 各王들의 官制整備記事는 꼭 그 王이 했고 꼭 그 해에 있었다고 믿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今西龍은

「三國史記百濟紀는 契王(344—346)頃까지는 其記事에 대해서 全혀 信用을 들수 없으며 契王以前의記事는 百濟中世에 製作粉飾하여 억지로 歷史의 體裁를 만든 것을 三國史記는 그대로 收錄한 것 같으며 近肖古王代에 이르러서 그 이름이 처음으로 日本紀에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²⁹⁾ 三國史記나 三國建國年代에 關한 日本人學者들의 不信的 態度를 端的으로 表示하고 있다. 우리는 日本人 學者들이 덮어놓고 國史를 歪曲하였다고 主張하는 그런 固陋한 國粹主義的 態度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日本人 學者들의 三國史記나 三國建國에 대한 所見이 하나의 先入見 같은 影響을 韓國人學者들에게도 준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三國時代에는 高句麗에 留記(百卷), 新集(五卷), 百濟에 百濟書紀(375年成), 百濟本紀, 百濟紀, 百濟新撰 등, 國史가 있었고 新羅에서도 545年에 國史를 編修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根本史料를 利用하여 만든 舊三國史가 있었을뿐 아니라 金富軾이 三國史記編纂時에 引用한 古書로는 三韓古記, 海東古記, 新羅古記, 新羅古事, 金大問의 高僧傳, 花郎世記, 鷄林雜傳, 樂本漢山記, 崔致遠의 帝王年代曆 등이 있으며 이밖에 中國側 史料로서 晉書, 魏

(29) 今西龍 百濟史研究(서울 1934年) p. 269

書, 宋書, 梁書, 南北史, 隋書, 新舊唐書, 通典, 冊府元龜, 資治通鑑, 李勣奏狀, 賈耽古今郡國志, 令狐澄 新羅國記 등이 있는 것이다.⁽³⁰⁾

이렇게 金富軾은 現在보다 8世紀나 以前에, 또 現在는 볼 수 없는 上記의 韓國側史料들을 根據로하고 이 三國史記를 만든 것이며 그것도 金富軾이가 自己 혼자서 密室에 들어앉아 小說쓰고 自傳 쓰듯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文林郎試掌治署令兼寶文閣校勘 崔山甫 以下 10名의 專門家와 함께 王命을 받고 國史를 編纂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進三國史表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克成一家之史 賦之萬世 炳若日星」하자는 仁宗의 뜻에 맞추기 위해 「疲精竭力 僅得成編」하였으며 그의 뜻은 「區區 妄意 天日照臨」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다. 即 金富軾은 修史委員長으로서 最善을 다하고 있는 것이며 萬一 三國史記가 一般이 흔히 생각하듯이 自己自身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뚜드려 맞친 것이라면 現代史家들의 攻駁보다도 당장 그 當當時에 一般知識人們로 부터 猛烈한 攻擊을 받았을 것이 틀림 없다. 그렇다고 나는 三國史記가 全的으로 正確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三國史記에 대한 우리의 그릇되고 誇張된 先入見은 拂拭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三國史記에서 金富軾이가 新羅金氏의 出이기 때문에 新羅를 上位에 두고 新羅에 대해서 有利하게 썼다는一般的인 批判도 一見 一理가 있는듯 하나 金富軾으로서는 三國을 統一한 것이 新羅이니 만큼 新羅로써 三國을 代表케하고 이어서 新羅統一時代, 그리고 그뒤를 이어반은 高麗의 順으로 序列을 만드는 것이 正史로서 體系있다고 생각해서 苦心끝에 그리했는지도 알 수 없는것이다. 萬一 自己만이 新羅의 後裔라 해서 新羅爲主로 썼다면 百濟나 高句麗系統의 집들에서 그대로 坐視하고 있었을 理가 없다. 金富軾은 앞에서 말한것 처럼 三國史記 編纂에 있어서 여러 古書를 基礎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없는 事實을 만들어서 넣거나 事實을 變造해서 記入한 것은

(30) 李丙齋 三國史記譯註 卷首의 解說文에 依한다.

아니다. 그런데 記事が 있는 것은 信用안되거나 너무 簡單하다고 하고 없는 것은 함부로 削除해서 그리된 것이라고 덮어놓고 나무라니 金富軾 以下 三國史記編纂員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일것이다.例를 들면 今西 龍은 新羅에 關해서

「三國史記의 奈勿王尼師今頃까지의 記사는 무엇에 依據해서 編成했고 무엇에 根據해서 紀年한 것인지 全혀 不明이다. (中略) 또 煩雜한 編年的記事는 무엇을 가지고 作成했을까, 新羅는 眞興王以後에 와서야 비로서 信史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新羅上古史는 王名까지 假作해서 作成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³¹⁾ 우리는 이러한 批判이 얼마나 獨斷的이고 矛盾的인 것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即 全혀 典據없는 假作이라고 斷定하면서 王名은 假作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王名은 어디에 根據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古代를 研究하는 사람들로서 現在나 現代의 머리를 가지고 史料를 다루는 共通的이고도 致命的인 缺陷을 우리는 새삼스레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 眞興王 以前것은 모두 金富軾이가 머리속에서 꾸며낸 虛空之事라고 하는 것인가, 三國史記의 그 部分이 萬에 一이라도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虛構之事를 늘어놓은 金富軾의 眞興王以後部分은 無條件信用하고 그에 立脚해서 新羅史를 研究하고 있을까. 우리는 中國史料에 없는 史實들이 三國史記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三國史記를 典據있는 貴重한 史料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저 中國것만이 옳고 三國史記는 모두 不可信의 것이라고 해치워버릴 수 있을까.

또 우리들의 不知不識間의 先入見으로서 西曆紀元前後란 時期는 우리나라로서는 宏壯한 太古이며 아직 무슨 石器時代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수가 많다. 이것은 當지도 않은 생각이다. 西曆紀元前後라

(31) 今西龍 新羅史研究(서울 1933) pp. 13—14

면 中國에서는 東西洋을 連結한 漢帝國이 있던 時代요, 漢의 비단이나, 漆器는 저 肅北蒙古의 「노인 울라」에까지 들어가 匈奴의 무덤에서 副葬品으로 發見⁽³²⁾되고 있는 時代며 또 高句麗의 戰士들이 傭兵으로서 中國軍에 加擔하던 時期다. 어떻게 우리鴨綠江南쪽 만이 石器時代에 머물러 있고 그 石器時代의 荒野에 漢의 遠征軍이 쳐들어 왔을까.

于先 高句麗의 경우를 보더라도 高句麗가 西紀前 37年에 建國했다는 證據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해에 建國했다는 證據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三國史記에 적혀 있는 그 年代를 褒어놓고 잘못이라고 할理由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温祚王이 아니고 太祖王(53~146)이 實質的인 建國太祖라고 推測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이름이 太祖라는 것과 그가 領土를 넓힌 大王이었다는데 있는듯 하나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建國太祖란 建國이라는 難業때문에 定礎事業만으로써 最大的 成功이요, 그 以後의 整備擴張事業은 三代 四代 王쯤 와서 完成되는 것이 慣習이며 그것은 高麗나 李朝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萬一 우리가 三國史記를 다루는 思考方式 即 國土를 넓히고 體制를 強化한 王이 建國太祖라는 式으로 한다면 李朝의 建國도 太宗이나 世宗代로 내리는 것이 正當하지 않을까, 아니 高句麗의 경우에도 萬一 魏志에 나오는 高句麗와 王莽과의 關係記事가 없었던들 建國을 太祖王代인 西紀 第一世紀까지도 올려보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高句麗에 關한限 三國史記의 所傳을 물리칠 理由가 하나도 없고 또 國家란 작거나 크거나 國家인 것이며 三國史記가 所據한 아마 高句麗自體의 古史料를 우리가 부디 不信하고 들어갈 必要가 없을듯 하다. 古代國家란 처음부터 어느 水準에 達한 面積의 國土와 또 組織을 가지고 出發하는 것이 아니며 처음에는 조그만 組織體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狀態는 遊牧民族에 있어서는 契丹, 女眞, 蒙古처럼 近世에 까지 反復되고 있는 것이다.

(32) 梅原末治 ノイン・ウラ (京都, 1960)

그러나 女眞같은 경우 우리는 太祖가 建國者가 아니고 太宗이나 世宗이 實質的인 建國者이며 따라서 女眞의 建國年代를 그때까지 내려야한다고는 아무도 主張하지 않는다.

百濟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는 百濟의 建國者가 高句麗出身이라는 것은 믿으면서 그 建國年代는 三世紀頃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다. 魏志東夷傳의 記事에 依해서 그때쯤 까지는 南韓은 三韓으로 갈라져 있었고 百濟는 伯濟라는 部族國家에 不過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도 한때 南北韓의 中間에 樂浪帶方郡이 무슨 地雷原같이 가로 놓여 있어 南北間의 交通은 매우 어려웠고 또 百濟의 王國으로서의 成立은 亦是 樂浪帶方郡의 滅亡뒤에야 可能했었으리라고 誤解하고 있던 때가 있다. 그러나 郡縣의 實體가 아무 보잘 것 없고 高句麗는 濟貊地帶를 通過해서 百濟와 實質의 으로 接하고 있었음을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高句麗로 부터의 南避는 얼마든지 可能했으며 百濟의 建國이 三世紀 以前에는 不可能했다는 理論은 根據가 없는 것이다. 事實三國史記百濟記에 있는 西紀第一世紀 동안의 百濟關係記事는 對靺鞨(濬貊)關係나 樂浪關係나 不信할만 한 것이 없다. 특히 温祚王八年(B.C.11)에 馬首城, 瓶山柵을 세워 樂浪과 失和하였을 때의 樂浪과의 交涉顛末 内容을 보더라도 조금도 造作같은 곳이 없다.⁽³³⁾ 勿論 이 記事의 年代가 實地보다 훨씬 올라 갔다고 덮어놓고 斷定해버린다면 더 反論할 餘地가 없다. 그러나 이 事件의 年代를 그렇게 내려다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帶方郡設置以前이며 西紀로 220年 以前

(33) 三國史記 卷 23 百濟本紀 1

溫祚王 8月 秋 7月 築馬首城 竖瓶山柵 樂浪太守使告曰 頃者聘問結好 意同一家 今逼我彊 造立城柵 或者有蠶食之謀乎 若不渝曰好 墮城破柵 則無所猜疑 苟或不然 請一戰決勝負 王報曰 設險守國 古今常道 豈敢以此有渝 於和好 宜若執事之所不疑也 若執事恃強出師 則小國亦有以待之耳 由是與樂浪失和

同 11年 夏 4月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秋七月 設禿山 狗川兩柵 以塞樂浪之路

의 일이다. 史家의 說에 依하면 아직 百濟建國以前이며 百濟가 伯濟라는 部族國家로 있을 때이다. 그러나 樂浪이 이때 일부터 使者를 보내 『두城을 쌓은 것은 우리와 싸우자는 것이니 撤城하지 않으려면 一戰으로 勝負를 내자』고 하고 있으며 그에 對해서 百濟側은 樂浪과 싸우려고 한 것은 아니나 守國上 撤城은 不可能하며 그래서 싸우자면 小國이지만 待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百濟가 獨立國家로서의 實力과 氣概를 가졌고 또 그러한 待遇를 받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이 것은 三國史記에 依하면 百濟의 漢城定都 以前이며 同王十三年七月漢水之南으로 都하고 同八月에 이것을 南隣馬韓에 알리는 한편 領土를 北은 濟河(禮城江), 南은 熊川, 西는 黃海, 東은 走壤이라고 明記하고 있다. 三國史記의 記事は 實로 理路整然하다.⁽³⁴⁾ 그 自體에 不信해야 할 點은 하나도 없다. 또 同王二十四年에 百濟가 熊川에 城을 쌓았을 때의 馬韓으로부터의 抗議內容속에 温祚가 처음 渡河南下하였을 때 땅을 주어 厚待했는데 至今 「國完民聚」라고 해서 이럴수가 있느냐고 있는 것도 百濟의 建國을 傍證하는 文句요 또 理路整然하며⁽³⁵⁾ 이러한 三國史記의 記事を 무엇에 依據해서 썼는지 모르겠다고 一蹴하고 있는 今西龍의 所說을 도리어 理解하기 힘들다. 百濟는 温祚27년에 馬韓을 滅亡시키고 있으며 同王 34年(西紀 16年)에는 馬韓舊將周勤이 牛谷城에서 叛하였다가 討滅되고 있다. 이러한 一連의 事件들을 通해서 温祚王의 建國太祖로서의 모습은 歷然하다. 三國史記에 依하면 二代 多婁王 6年(33)에 南粊 州郡

(34) 三國史記 卷 23 百濟本記 1

溫祚王 13 年 8 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定疆場 北至濟河 南限熊川 西之窮大海 東極走壤

(35) 三國史記 卷 23 百濟本記 1

溫祚王 34 年 秋 7 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曰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日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侵犯我封疆 其義如何 王懶遂壞其柵

李丙燉博士는 이事件을 温祚王이 아니라 衛滿에게 쓴 準王과 關連되는 것이라고 推論하고 있다. 韓國史古代篇 pp. 270—272

에 稻田耕作을 시작케 했는데 이것도 새로 領土가 된 湖南地方에 아마 樂浪式의 水田과 裁稻를 퍼뜨렸다고 생각하면 前後事情에 비추어 조금도 異常스러운 點이 없으며 西紀 63年에 百濟가 拓地하여 娘子谷까지 이르러 新羅와 接境接觸하고 있는것도 百濟의 國力充實과 新羅의 國家로서의 存在를 말해주는 重要한 文字이다.⁽³⁶⁾ 이렇게 高句麗 本紀와 마찬가지로 百濟本記의 記事는 읽어 보아서 前後矛盾되거나 根據없는 虛偪之事같은 點을 느끼지 못한다. 日本書記의 初期記錄처럼 王의 在位年代가 있을 수 없을만치 긴것도 없으며 地震, 旱魃記事등 確實한 典據를 가지고 쓴 史書로서의 資格을 具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新羅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자, 新羅의 建國은 奈勿王代로서 西紀로, 四世紀 三國中 가장 늦게 推定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三國史記에는 도리어 西紀前 57年, 三國中 가장 빠르게 되어 있으며 이點도 三國史記不信의 重要한 原因으로 되어있다. 確實히 新羅建國初의 記事中에는 具體的인 것이 드물고 또 樂浪人の 來攻 記事が 여러번 나오는데 이 樂浪關係記事는 잡짜기 理解하기 어렵다. 萬一 그러한 것들이 事實이라면 이것은 樂浪의 傭兵으로 이때마다 쓰인 濱貊族이 樂浪을 自稱하고 新羅에 掠奪을 위한 攻擊을 加해온 것이라고 밖에 解釋할 道理가 없다. 그것은 何如튼 新羅에 關한 記事도 西紀一世紀中葉以後가 되면 차차로 具體化하며 그때부터 百濟와의 交涉, 伽倻나 鞏鞨과의 戰爭記事가 많아지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西紀一世紀中葉에는 新羅가 嚴然한 一國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新羅가 所據한 慶州地區에는 永川琴湖洞이나 月城郡入室里등에서 본바와 같은 細形銅劍類一括遺物出土地 및 비슷한 初期鐵器時代遺蹟이 集中되어 있어⁽³⁷⁾ 그런 點에서는 平壤과 맞서고 있는 位置를 차지하고 있

(36) 三國史記 23 百濟本記 1

多賈王 36年冬10月 王拓地至娘子谷城 仍遣使新羅請會 不從

(37) 古蹟調查報告(大正 11年度 第2冊),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金元龍編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等參照

다. 이러한 遺物들은 衛滿朝鮮이나 그 以前의 所謂古朝鮮期를 通한 金屬人들의 南下, 定着과 關聯된 것은 두말할 것 없는데 慶州에서 일어나는 新羅의 主體勢力은 이러한 金屬文化를 背景으로 하고 있을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부터 慶州에서만 王國이 西紀四世紀에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무 根據없는 推論이며 三國史記의 記事를 全혀 無視하고 極히 簡略한 中國側史料만을 金科王條처럼 믿는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된다. 實際 新羅의 경우에는 그 木榔墳이라던가 樹木과 鹿角을 表示하는 冠帽, 그리고 殉葬風習의 示唆(智證王三年(502)禁殉葬記事) 等 華北地方을 包含한 北方的인 性格이 強하여 魏志東夷傳辰韓條의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 避秦役來」云云의 所傳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新羅建國主體勢力들의 이와 같은 背景을 생각할때 앞에서 말한것처럼 그바탕은 高度의 金屬文化이며 이地域이 高句麗나 百濟보다 建國에서 꼭 뒤떨어져야 할 理由는 없는 것이다.

再言하거니와 三國의 建國에 關해서 三國史記의 所記가 여러모로 慎重한 檢討와 分析을 거쳐서 分明히 잘못이고 高句麗, 百濟, 新羅의 建國年代가 各各 西紀一世紀, 三世紀 그리고 四世紀가 틀림없다고 判定, 決定될 수 있다면 나는 教科書나 年表등 一切에서 三國이나 三國時代의 年代를 그렇게 表示하고 그 以前의 假令數世紀는 三韓이면 三韓, 韓滅면 韓滅라는 뚜렷한 時期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年代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年表에는 各各 三國史記의 年代를 쓰고 또 그 不信스러운 事件들을 그대로 係記하고 있으니 언제 보아도 明確한 狀態를 把握 할 수 없고 또 國史上 가장 重要한 이 時期를 曖昧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되풀이 하는것 같지만 三國史記의 建國部分을 不信하는 것은 그러한 時期가 魏志의 記事로 보아 아직 三韓時代로서 南韓에는 아직 眞實한 王國이 없었다고 보는데 가장 큰 原因이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南韓에서의 三韓時代는 三國史記의 記錄대로 西紀一世紀頃에는 消滅

된 것으로 보는 것이妥當하며 三韓時代의 主要部는 도리어 西紀前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三韓의 所謂 諸國이란 從來의 石器時代에서 벗어난 南韓各地의 住民들이 青銅·鐵文化를 “背景”으로 部族이나 村落國家들을 形成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地域的으로 自然, 區分된 名稱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現在까지 내려오는 傳統的인 地域圈으로 크게 分類된 것이 三韓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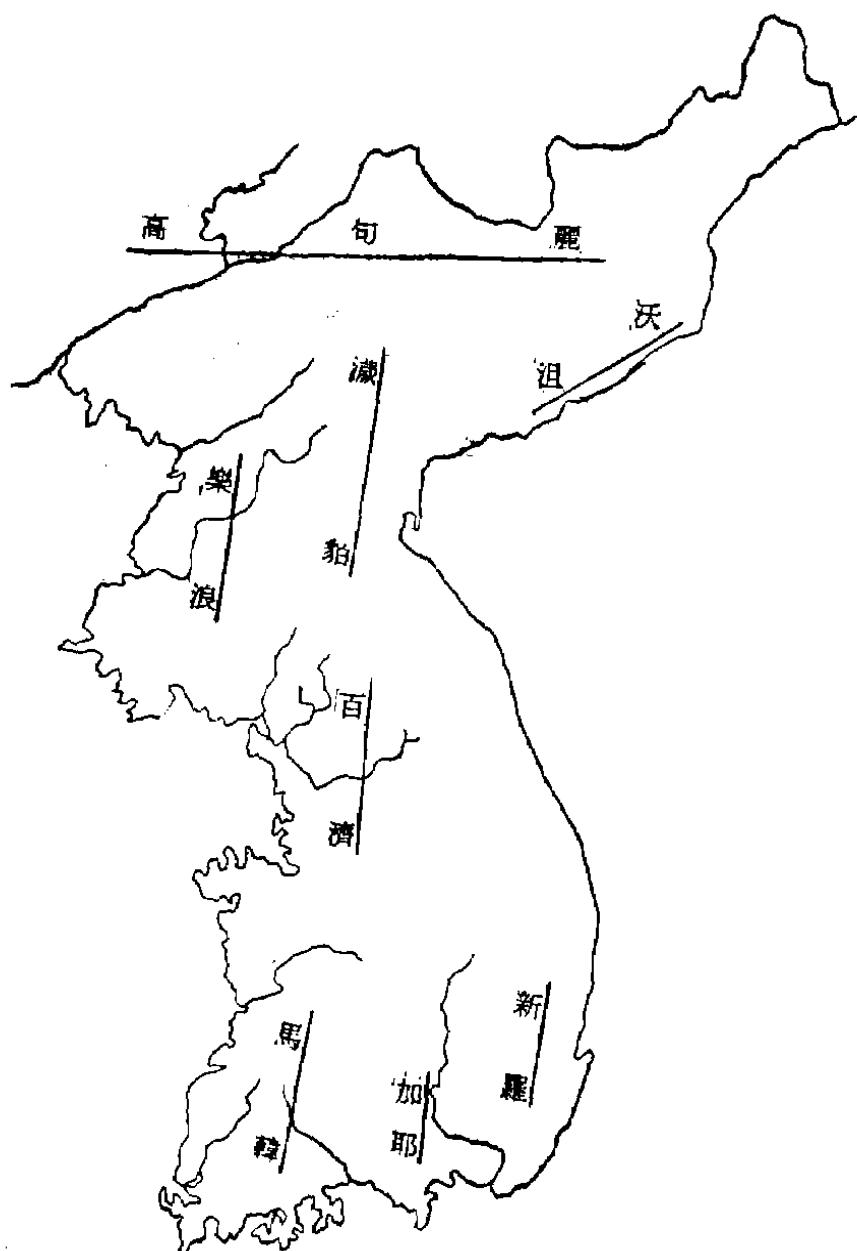


圖 2.

西紀1世紀頃의 形勢圖

이와같은 地域圈을 뒷받침 하는것으로 우리나라 初期鐵器時代에는 세 개의 中心地가 있다. 그 하나가 大邱—慶州地區요 둘째가 靈岩—光州地區, 그리고 第三이 洛東江江口地區이다. 大邱—慶州地區가 初期鐵器時代遺蹟遺物의 集中的 分布地域임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은데 最近의 知識에 依하면 益山—光州地區가 湖南에서의 그러한 中心地가 될 徵兆가 있다.⁽³⁸⁾ 洛東江 텔타 地方에서는 金海貝塚, 東萊貝塚 그리고 梁山貝塚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豐富한 鐵器使用으로서 注目되며 그 狀況은 바로 魏志東夷傳弁辰條의 「國出鐵 韓瀛倭 皆從取之」云云의記事와 副應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 경우 이記事는 魏志의 時代 即 西紀三世紀頃의 일이 아니냐고 反問하겠지만 魏志의記事年代를 꼬魏의 實年代에 制限하는 것이 史料取扱上의 根本的 잘못이며 이것은 도리어 魏代以前의 狀態를 말 한다고 解釋해야 하는 것이다. 事實 日本의 初期鐵器時代인 彌生時代는 西紀前 200年頃에 이미 시작하고 있으며 그 開始에 있어서 南韓과의 直接的인 交通이 決定的인 要素의 하나였음은 이미 周知의 事實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金屬文化를 바탕으로 하는 세개의 中心地가 存在하였다고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바로 所謂 三韓의 각各 中心地요 且 代表的인 地域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三韓時代의 實年代의 主要部가 西紀前의 二,三世紀間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魏志가 말하는 辰王이 馬韓王을 뜻하는 것은 李丙燾博士의 이미 指摘한바와 같으나 나는 그 辰王 即 馬韓王이 바로 韓地로 逃亡왔다는 準王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中國人들이 그 準王이 마치 馬韓의 王이 된 것처럼 誤解한데서 그가 目支國에 있으면서 馬韓全體를 統率한 것처럼 記錄하여 混亂의 씨가 된 것이라고 보고싶다. 目支國의 位置에 對해서 李

(38) 靈岩地方에서는 解放前에도 細形銅劍類의 發見이 있었고 近來에는 鑄範類의 一括發見이 있었다. 이런 點에 關해서는 拙稿「韓國文化의 考古學的研究」(韓國文化史大系 I 所收) p. 269 參照

丙燾博士는 成歡稷山 一帶라고 比定하고 있는데⁽³⁹⁾ 여기서 부터 너무 멀어져 있기는 하나 初期 鐵器時代의 西南韓 中心地로서의 益山光州一帶와 或是 關係를 가질 수 없을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다. 慶州一大邱一帶는 같은 意味에서 東南韓族의 初期 鐵器時代의 中心地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일찍이 王國이 나타난다는 것은 決코 不可能한 일이 아님 것이다. 結局 三韓時期는 考古學上으로 말하는 南韓의 初期 鐵器時代 即 西紀前三世紀頃부터 시작해 實質的으로 西紀一世紀頃까지 存續했으며 百濟의 建國者들이 中部韓國에 到着했을 때는 三韓時期의 末期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百濟는 곧 實質的으로 中心統率力を 갖지 못하고 있던 西南韓의 韓族들을支配하여 王國을 形成하고 二世紀가 되면은 北粊郡縣에 대해서 活潑하게 달겨들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再昨年 서울 東郊 風納洞에 있는 所謂 百濟의 土城을 發掘 이러한 나의 年代觀이라 할까 三國建國의 年代에 관해서 더욱 傍證을 얻을 수 있었다.

風納里土城은 三國史記에 나오는 鮒城이라고 믿어지며 初創은 언제인 지 모르나 아마 慰禮城과 同時に 百濟初期에 築造된 모양이며 그것이 資稽王元年(286)에 大大的으로 修理된 것은 틀림없다.⁽⁴⁰⁾ 이 土城은 이렇게 三國時代 初期 것이기 때문에 여기 包含層의 發掘을 通해서 當時의 土器相을 밝혀볼 目的으로 1964年 가을 城內에 몇개의 핏트를 팠으며 그 報告書는 따로 出版될 豫定이다. 그것은 何如든 여기에서 나오는 土器의 種類로는 1. 風納里無文土器 2. 有文粗質土器 3. 金海式有文土器

(39) 韓國史 古代篇 p. 285

(40) 三國史記 卷24 百濟本記 1

資稽王元年 王徵發丁夫葺慰禮城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王娶帶方王女寶果爲夫人 故曰帶方 我舅甥之國 不可不 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怒 王慮其侵寇 修阿旦城 鮒城備之

風納里土城의 比定에 對해서는 李丙燾「廣洲風納里土城과 百濟時代의 鮒城」震檀學報 10號(1939) pp. 145-153

4. 新羅式土器 5. 黑陶의 五種이 있다. 이 土器들에 對한 詳細한 說明은 正式報告書로 미루기도 하지만 第一의 風納里無文土器라고 한 것은 胎土器形에 있어서 前代의 無文土器와 조금도 다름 없으나 燒成度가 훨씬 높아진 改良種이며 濟州島의 變形支石墓에서 發見되는 土器와 同式이다. ⁽⁴¹⁾ 이 土器가 先史時代의 無文土器와 直接連結되는 것임은 두말 할것도 없다. 第二의 粗質有文土器는 弱한 瓦質이며 石粒을 섞인 胎土를 가졌고 表面에는 格文이나 繩文 또는 繩席文이 있는데 格文이 大形이며 古式이어서 같은 文樣이지만 金海土器의 그들과는 좀 다른것이 注目되어 華南의 同種土器와의 關係가 推測되기도 한다. 第三의 金海式有文土器는 金海貝塚에서 보는 바와 같은 硬質의 格文繩席文 青灰色土器며 金海貝塚土器의 年代와 같거나 가깝다고 생각된다. 第四의 新羅式土器는 金海土器에서 文樣이 없어진 것이며 百濟土器特有의 三足杯와 新羅式透窓을 가진 高杯臺足片이 包含되고 있다. 마지막 黑陶라 함은 表面이 煤黑色이며 그것을 磨研하여 光澤을 낸것도 있고 器形으로서는 簡形有蓋器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土器는 高句麗土器에서 흔히 보는 바이며 高句麗로 부터의 直接的 影響을 證明하고 있다.

以上의 土器들은 모두 現地表下 2.8m이나 밑에 깔린 土城初築當時의 住居面에서 나오며 이 住居面에서는 硬質의 古式蓋瓦와 다듬질 한 磚石들도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蓋瓦를 덮은 家屋들이 여기 土城初築時부터 있었으며 前記 各種의 土器들도 當初부터 모두 共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城의 歷史는 적어도 三國史記에 나오는 286年까지는 틀림없이 올라가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三國史記의 年代를 不信할지 모르나 나 自身은 그 年代는 土器의 性質로 보아 實地보다 더내려졌으면 내려졌지 史記의 著者가 더 올려 놓은 것은 아니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金海土器를 내는 金海貝塚의 年代를 西紀直後의 二世紀間程

(41) 金哲俊「濟州島의 支石墓調查報告」서울大學校 論文集 9輯

度로 볼때⁽⁴²⁾ 金海式土器를 내고 그보다 古式인 粗質有文土器, 그리고 더 구나 先史時代土器에 直結되는 風納里無文土器를 내는 風納里의 開始年代가 金海貝塚보다 뒤떨어질 可能性은 없다. 더구나 問題의 金海硬陶가 北에서 내려오는 戰國式有文陶의 影響下에 發生한 것임은 周知의 일인 즉⁽⁴³⁾ 風納里는 位置上으로도 金海貝塚에 先行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新羅式土器는 金海貝塚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그것은 風納里도 마찬 가지다.

이렇게 風納里土城開始의 時期가 늦게 보아도 金海貝塚時期와 거의 맞먹는다고 볼때 百濟의 建國을 부디 西紀三世紀로 내려야 할 理由는 없을 것이며 이 風納里初期에 이미 盖瓦로 덮은 家屋들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앞에서 說明한바와 같이 所謂 西曆紀元後 一,二世紀頃의 中部 韓國이 決코 石器時代나 그와 비슷한 野蠻狀態에 놓여 있던 것이 아니고 意外로 發達된 高度의 文化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수 있으며 그러한 背景下에서 비로서 三國史記나 魏志에 나타나는 建國記事, 郡縣과의 交涉記事 그리고 「韓濱強盛」等의 文句가 理解될 것이다. 또 風納里에 高句麗 것과 꼭 같은 黑陶가 있다는 事實은 이 時期에 있어서의 南北間의 直接的인 交通이나 百濟가 北에서 내려왔다는 所傳의 信憑性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物的 證據가 樂浪郡의 政治的 地理的 勢力圈이 想像外로 적었고 南北의 交通은 濱貊을 通해서 열마든지 實行되었다는 筆者の 所見을 더욱 뒷받침 해준다고 하겠다.

事實 日本만 하더라도 西紀 300年代에는 이미 巨大한 前方後圓墳이 造營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樂浪帶方關係古墳을 除外하고는 四世紀로 올라간다는 古墳을 모르고 있다. 慶州의 古墳은 五, 六世紀로

(42) 金海貝塚의 年代는 漠然히 西紀前後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貝塚堆積層의 實年代는 西曆紀元前後부터 200年未程度까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拙稿「金海貝塚年代에 對한 再檢討」歷史學報 9輯(1957. 5) pp.107—112

(43)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京都, 1948) pp. 184—185

보는 것이 常識이며 公州扶餘 附近의 古墳도 그러하다. 말하자면 古墳上으로도 三國의 鼎立은 四世紀以後가 되어야 한다는 結果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아직 三國時代 初期의 古墳을 發見못하고 있거나 했어도 盜掘되어서 그 正確한 年代를 잡지 못하고 있고 또 遺物이 있는 경우도 三國時代開始에 對한 叙上의 誤解와 先入見 때문에 正確한 編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第一의 경우 初期의 古墳들이 形態가 작거나 또는 封土가 없어져서 우리의 눈에 아직 떠지 않았을 可能性도 있다. 그러한 예로 나는 金海郡 大東面禮安里와 蔚山郡溫陽面三光里의 小石墳墓群을 들고 싶다.⁽⁴⁴⁾ 이러한 古墳들은 모두 封土가 없어 發見하기 힘드나 副葬土器로 보아 慶州地區 古墳에 先行하는 것이 分明하며 나는 이러한 古墳이 金海時期를 通한 過渡期的 墓制일것이라고 이미 示唆한바 있다.⁽⁴⁵⁾ 앞으로의 이러한 小石墳墓에 대한 우리의 分布調查와 發掘事業이 繫要하다. 그 다음, 盜掘되어 年代決定이 어려운例로서 바로 風納里土城 周邊의 古墳群이 있다. 서울 燕島나 中谷洞, 驪州邑附近에 散在하는 古墳들로서는 작은 土墳墓로서 封土에 瓦片을 써운 것, 또는 高句麗式의 家族墓의 石室墓로서 内部에 棺臺와 石枕을 가진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時代에 關해서는 그저 百濟初期로 알려졌고⁽⁴⁶⁾ 그 初期라는 것이 기껏해서 四世紀 前後를 말하는 것임은 두말

(44) 禮安里것은 5,6年前에 釜山大學校에서 應急發掘을 하였으나 現在 모두 整地되어 버렸고 三光里것은 國立博物館에서 發掘하였으나 報告書未刊이다. 前者は 小丘山下의 中地에 얕게 묻힌 것이며 雜石으로 쌓은 矩形小石槨에 사람 하나를 간신히 伸展葬한 것인데 平行橫條를 等間隔으로 둘린 古式墓들이 나왔고 後者は 얕은 丘陵의 緩傾斜面에 촘촘히 만들어진 亦是 小石墳群으로서 매우 古式의 卵形土器가 新羅土器와 함께 나오고 있고 모두 封土가 없는 것이다.

(45) 拙稿(註 38 出) p. 273 參照

(46) 이밖에도 城東區可樂里 石村里 加平郡梨谷里 등에도 있다.

大正 5 年度古蹟調査報告 所收 今西龍 報告

昭和 2 年度古蹟調査報告書 第 2 冊 p. 27 및 圖版

梅原末治 朝鮮古代の墓制 (京都 1947)

할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古墳의 年代觀은 土城里의 그것과 併行시켜서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副葬品이 있으면서도 年代決定이 再考되어야 할 예는 許多할 것인데 于先 그 하나로 義城塔里古墳을 들 수 있다. 이 古墳의 第1槨은 石槨自體가 古式인데다가 그 土器가 前記禮安里의 그것과 相通하는 點이 있고 또 그 冠이 特殊한 羽形인 것 그리고 古式인 귀걸이로 보아 그 年代는 輝신 올라갈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⁴⁷⁾ 이 밖에도 羅州地方의 瓷棺墓들이나 大邱, 高靈등 慶州周緣地區의 이미 報告된 古墳中에서도 仔細히 檢討하면 그 年代觀이 是正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들을 잘못으로 이끌 어가기 쉬운 것은 예들 들면 鎏帶金具 등에서 慶州地區의 그것과 같은 것만 나오면 年代를 同一視 해버리는 따위의 單純한 思考方式이다. 周知하다 시피 어떠한 樣式이나 形式은 別 變化없이 二, 三世紀정도는 存續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時代를 달리하는 두개의 古墳에 있어서도 同形式의 것이 나올수 있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同形式物의 存在는 年代上의 接近은 말해줄지는 모르나 반드시 同時代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同形式것이 있으면서도 그속에 新古를 나타내는 다른 遺物의 有無를 精密히 檢討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用意가 過去에는 不足한 듯 하고 거기에 三國時代에 對한 先入見이 加力해서 모든 古墳은 그저 五, 六世紀頃으로 보아 버리군 한듯 하다. 이點에 對해서 우리는 깊은 反省을 해야만 하겠다. 우리는 將次 새로운 編年과 發見으로써 三國時代의 始作을 考古學的으로도 證明할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47) 이에 대해서는 金載元, 尹武炳 義城塔里古墳(國立博物館報告第3冊)參照
報告者들은 結論에서 이 第1槨에서 나온 귀걸이가 樣式上 始源의 部類에 屬하며 따라서 時期가 올라갈것을正確하게 指摘하면서도 그 年代를 五世紀 初葉이나 四世紀末 以上으로 올려보지 않았다(pp. 70—72) 그러나 이 塔里古墳을 처음으로 西紀四世紀末頃까지 올려본 것은 違見이라 하겠다.

五. 結 言

以上 매우 不充分한 文獻的檢討와 亦是 不足하기 짝이 없는 考古學的 資料 위에서 燥急하고 疎忽한 論旨를 展開했으나 그 要旨는 다음 처럼 될 것이다.

1. 樂浪, 帶方等의 漢의 郡縣은 地理的으로 極히 制限된 西海岸 一部 인 大同江江口地域에 局限되었으며 우리가 想像하듯이 軍事的으로나 政治的으로 重大한 影響力이나 拘束力を 가지지 못했고
2. 濟貊은 高句麗를 包含하여 平安道 黃海道 江原道 一帶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濟貊地帶를 通하여 南北間의 交通이 平和的 또는 非平和的으로 얼마든지 이루어 졌었다.
3. 三國史記가 傳하는 三國의 建國年代에 關해서 그것을 全的으로 拒否할 理由는 하나도 없으며 當時의 一般的인 情勢나 考古學的 資料 특히 風納里土城發掘에서 나타난 百濟初期의 文化水準이나 土器相으로 보아 三國의 建國을 西紀前一世紀나 後一世紀頃으로 볼 수 있고
4. 우리가 普通 말 하는 所謂 三韓時代라는 것은 이것을 魏志東夷傳時代에 둘 것이 아니라 考古學에서 말하는 初期 鐵器時代, 實年代로 말하면 西紀前三世紀頃부터 西曆紀元前後까지의 二,三百年으로 보아야 하며 三國時代는 南韓에서 아직 一部 村落國家같은 地緣集團이 있고 北韓에서는 樂浪帶方郡 그리고 아직 高句麗의 統制下에 完全히는 들어가지 않은 濟貊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歷史的으로는 三國의 主體가 成立된 西紀前後——三國史記의 所記에 따라서 西紀前一世紀부터 始作케 하여야 하며
5. 三國史記가 編纂物로서 杜撰이라는 非難을 받을 部分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内容은 金富軾을 委員長으로 하는 多數의 委員들에 依해 古來의 正史, 史料등에 依據해서 「正史」로서 發表한 것이

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假作, 虛僞, 改作 등은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三國史記에 對한 盲目的인 不信態度를 버리고 史料로서 다시 한번 科學的인 檢討를 해야한다.

이러한 筆者의 結論이나 그 結論에 到達하기 까지의 푸로쎄스에 對해서 先輩同學들의 忌憚없는 批判과 叱正을 바라는 것은 序言에서 이미 말한바와 같으나 비록 筆者의 所論의 全部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三國史記를 虛心相懷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微意만 理解 된다면 筆者의 所願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追 註

樂浪과 土着社會와의 關係를 詳細하게 다룬것으로 三上次男教授의 「樂浪郡社會の 支配構造と土 着民社會の 狀態——樂浪郡社會の 支配構造」(朝鮮學報三〇輯)와 「南部朝鮮に 於ける 韓人部族國家の 成立と發展——古代の南朝鮮」(古代史談話會編「邪馬台國」所收)가 있어 모두 同教授의 力著「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東京1966年)에 收錄되어 있으나 筆者의 輕率로 原稿作成時에 引用하지 못하였다.